

제 3회 '아큐-책 아트 콘테스트' 시상식

한국로슈진단(주)이 후원하는 제 3회 '아큐-책 아트 콘테스트' 시상식이 지난 10일(목) 그랜드힐튼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개최됐다. 소아당뇨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그림 그리기를 통해 당뇨병을 극복하고 소아당뇨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이 행사의 2005년 주제는 '나의 당뇨 이야기'이다.

황현정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시상식에는 국회의원 및 보건복지부 관계자, 연예인, 산악인 등 유명인사들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는데 정화원, 안명옥 국회의원 등이 소아당뇨환아들과 부모님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소아당뇨인 대표가 아직은 열악한 소아당뇨의 의료지원 체제를 소개해 많은 참석자가 국가적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또 이날 전 대통령 주치의인 허갑범 교수와 여러 인사들이 주축이 된 '소아당뇨 후원 준비위원회'가 발족되었는데, 후원금도 모금되어 앞으로 소아당뇨 어린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받았다.

이후 여러 우수작품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되었는데, 본 협회 김태명 총무이사는 (사)한국당뇨협회상을 시상했다. 또한 소아당뇨 어린이의 수기발표와 증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같이 모이기 어려웠던 소아당뇨 어린이 및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보와 교류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